

# 광주 노숙인 느끼는데... 수용시설 고작 2곳뿐

작년 377명으로 1년새 2배 급증...한겨울 갈곳없어 '덜덜'

주거공간 늘리고 사회 복귀 프로그램 등 대책 절실

광주지역 노숙인이 부쩍 늘어났지만 이들을 위한 재활·자활시설 등 수용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거리에서 생활하면서 때때로 겨울 한파를 피할 수 없는 노숙인들이 늘어나면서 자칫 동사(凍死) 등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재활·자활시설 입소자와 거리 노숙인 현황을 파악한 결과, 광주지역 노숙인은 지난 2012년 128명으로 집계됐으나 지난해 377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전국 16개 시·도 중 증가 수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지난해 광주를 비롯, 5개 도시만 노숙인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노숙인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노숙인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 공간 등은 여전히 미흡한 형편이다.

광주 지역 노숙인 복지시설은 재활시설 광주희망원과 자활시설인 무등노숙인쉼터 등 2곳에 불과하다. 광주희망원이 130명을 수용할 수 있고 무등노숙인쉼터에 20명이 머무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노숙인들은 한파를 피해 머무를 공간이 없는 셈이다. 광주희망원의 경우 현재 149명이 이용하고 있어 수용 인원을 초과한 상태다. 보호시설이 없다보니 상당수 노숙인들은 거리를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최근 구청, 경찰 등과 함께 '동절기 거리 노숙인 보호를 위한 취약지역 집중점검'을 나선 결과, 광주중

합버스터미널이나 양동복게장가 지하차량, 광주공원, 광주천, 광주역 등에서 신문 등을 덮어쓴 채 한파를 피하고 있는 8명의 노숙인들을 발견, 시설 입소 등 일시 보호조치를 내린 바 있다.

노숙인들이 한파를 피할 장소를 찾아나서면서 자치센터나 병원 보호자대기실에 머무르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광주동부경찰청은 대학병원 보호자대기실에서 노숙 생활을 하며 환자 보호자 등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김모(25)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김씨는 3년 전 부모가 사망한 뒤부터 보호시설이 아닌, 거리 등을 전전하며 노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모(58)씨는 지난 9월 광주시 동구 서남동 주민센터 건물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 직원들이 퇴근한 뒤 사무실을 돌며 물건을 훔친 혐의로 붙잡혔다.

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노숙인 보호시설 입소절차가 경찰·구청의 입소 의뢰서와 20일 가량 걸리는 심사위원회의 절차 등이 까다롭다는 점을 들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 노숙인이 일시적으로나마 머무를 수 있는 보호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노숙인이 급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재활 과정을 거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한 남성이 광주시 동구 금남로 지하상가 입구 계단에 앉아 행인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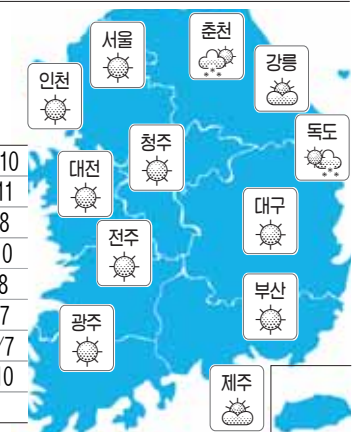
해돋이 07:38, 해질 17:26, 달뜨기 09:07, 달지기 20:03

### 산타할아버지 오실까?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맑아졌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1/9	보성	맑음	-2/10
목포	맑음	2/9	순천	맑음	2/11
여수	맑음	4/10	영광	맑음	0/8
나주	맑음	-2/9	진도	맑음	1/10
완도	맑음	3/10	전주	맑음	1/8
구례	맑음	-2/9	군산	맑음	0/7
강진	맑음	0/10	남원	맑음	-2/7
해남	맑음	0/10	홍산도	맑음	7/10
장성	맑음	-2/8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서~북서	0.5~1.0	북서~북	0.5~2.0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	북서~북	1.5~3.0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1.0	북서~북	0.5~1.5
서부 앞바다(동)	남서~서	0.5~1.5	북서~북	1.0~2.5
면바다(서)	서~북서	0.5~1.5	북서~북	1.0~2.5

### 생활지수

동파	25
운동	40
빨래	70

###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3:19	16:03	08:37	21:16
여수	10:46	22:52	04:06	16:50

### 주간 날씨

25(목)	26(금)	27(토)	28(일)	29(월)	30(화)	31(수)
☀	☁	☁	☁	☁	☁	☁
-2/5	-3/6	-2/8	-2/7	-2/6	-2/5	-3/2

## 한국여성 10명중 3명 "첫 만남때 키스 허용"

제일기획, 국가별 300명 설문  
중 5%·日 15%보다 높아  
70%는 "일보다 사랑이 중요"

운 입맞춤이, 16%는 키스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상하이와 도쿄 여성의 입맞춤 허용 비율은 3%와 6%, 키스 허용 비율은 2%와 9%로 조사됐다.

연애경험이 많은 한국 여성 10명 중 3명은 첫 만남 때 입맞춤이나 키스를 허용할 수 있다는 '사랑관(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5%), 일본(1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첫 만남서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응답비율도 서울(12%)이 상하이(1%)나 도쿄(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떤 스킨십도 허용할 수 없다'는 비율은 서울(9%)이 상하이(23%), 도쿄(16%)에 비해 낮았다.

'일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질문에 일본 여성 10명 중 7명은 '그렇다'고 답했다. '약속 시간이 10분 이상 지나도 기다린다'고 응답한 비율도 일본이 86%로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훨씬 높았다.

'내 삶에 있어 일보다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답한 이는 도쿄가 70%로 서울(52%), 상하이(58%)에 비해 높았다. '약속 시간이 10분 이상 지나도 기다린다'고 말한 여성 비율(중국 응답)은 서울이 63%로 상하이(56%)나 도쿄(47%)에 비해 높았다.

제일기획은 서울과 상하이, 도쿄의 20~40대 여성 중 연애경험이 많은 300명(국가별 100명)을 선발해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분석 내용은 제일기획의 트렌드 예측 보고서인 '미이너리티 리포트' 최신호에 게재됐다.

배우자 선택시 중요 요소(2개 선택)로 서울 여성은 성격(61%)과 코드(33%), 재력(28%), 직업(26%) 등을 꼽았다. 상하이 여성은 성격(70%)과 건강상태(27%), 외모(23%), 재력(20%) 등의 순으로, 도쿄 여성은 성격(69%)과 코드(41%), 재력(26%), 취향(20%)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조사대상 여성들의 연애 경험 횟수는 평균 14회로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남자라면 누구라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응답한 이들이다.

'처음 만난 남자와의 스킨십 허용범위'와 관련해 서울 여성의 14%는 '기버'로 응답했다. 중국(5%), 일본(1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 광주교육청 일반직 406명 인사

행정국장에 김남호 총무과장 승진 임명

유영근 연수원총무부장 여성 첫 부이사관

광주시교육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일반직 간부공무원 승진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사상 첫 여성 부이사관이 탄생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내년 1월 1일자 일반직공무원 406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23일 단행했다.

특히 부이사관(3급) 3명, 서기관(4급) 8명, 사무관(5급) 10명이 승진해 사상 최대 규모의 간부공무원 승진인사가 됐다.

김항근 행정국장은 금호평생교육관장으로 이동했다.

이번 인사의 최대 관심이었던 행정국장에는 김남호 총무과장이 승진임명됐다. 또 유영근 광주시교육연수원 총무부장은 1986년 광주시교육청 개청 이래 여성으로

서는 처음으로 부이사관에 올라 광주학생 교육문화회관장을 맡게 됐다. 박태일 공보담당관도 승진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으로 임명됐다.

주시의회 교육전문위원으로 각각 승진 명령됐다.

혁신도시 '축산악취' 진원지 호혜원 내년 4월까지 폐업

주연구 보건급식담당, 노영기 초중학교 설립담당도 서기관으로 승진해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파견됐고, 기술직인 김근수 서부교육청 학교시설지원과장도 승진해 학생교육원 총무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광주·전남혁신도시 '축산악취' 진원지로 지목됐던 호혜원이 내년 4월 폐업된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23일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 KDN 개청식에 참석해 "여러분이 가장 버거워하시는 호혜원 악취문제는 (내년) 4월까지 끝내겠다"고 밝혔다.

또 총무과장에는 중앙교육연수를 마치고 온 이흥재 서기관이 배제됐고, 김병주 행정예산과장과 김성균 교육협력관은 각각 동·서부교육청 행정국장으로 옮기는 등 서기관 8명이 이동한다.

이 지사는 "잊그저께 나누시와 협의해 (내년) 4월까지 호혜원 양돈(농가)에 폐업보상을 완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금영 재정지원과 주무관 등 10명은 사무관(5급)으로 승진, 일선 학교 행정실장으로 임명됐다.

앞서 나누시는 도비와 시비 등 80여억원을 축산단지 폐업보상비로 우선 편성하기로 했다.

한편, 유육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등 6명은 명예 또는 정년 퇴직했고, 정공선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등 6명은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호혜원은 혁신도시와 6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로, 150여 가구가 돼지와 닭·오리 등 가축 10만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당뇨병 환자도 부담없이 드실수 있는

# 천연설탕 토디팜 재거리

순수함을 간직한 청정지역 미안마의 자연선물

식약청 검역필 41762-14-002447J

단맛을 내는 "모든음식"에 사용하세요

천연설탕 자연산 100%

런칭 기념 2+1

- 시럽 프리미엄(750g) 28,000원
- 시럽 일반(750g) 22,000원
- 가루(1kg) 38,000원
- 고체(1kg) 36,000원
- 강황(500g) 15,000원

각종류별도/시럽/가루/고체 • 무통정입, 계화이체 : 광주은행 040-121-698715 네이처코미

**약으로 쓰이는 아자수액을 끓여 만든 오리지날 천연설탕 미안마 재거리**

1. 낮은 당 수치로 당뇨병 및 고혈압 예방
2. 신경계와 심장에 좋음 / 피를 맑게 함
3. 낮은 열량 / 다이어트 효과
4. 기력회복 / 정력에 도움
5. 소화불량 / 변비예방
6. 폴리페놀 성분 / 아카시아 벌꿀의 20배 /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7배 / 비타민C,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

건강 100세를 기원하는 천연식품기업

**네이처코미**

주문상담 **1899-8752**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7-1 금영빌딩 603호 네이처코미